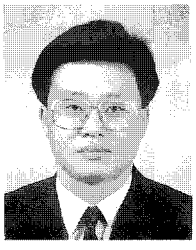
채소산업 현황 및 육성제도

시설채소류인 콩나물의 재배시설 지원은 올해 최초 신규 지원사업(30억원)으로 진행중이다.



성 명 : 이 재 욱
소 속 : 농림부 채소특작과 농업사무관
전 화 : (02) 2110-4374
E-mail : jolee@maf.go.kr

우리 나라 채소산업 현황

채소산업은 국민소득증가에 따른 과채류, 양채류 등의 소비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총 생산액이 1990년 3.3조원 수준에서 2000년 6.7조원 수준으로 10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농업에서 채소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 19%

<표 1>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톤, 억원)

구분	'97		'00		'01		'02 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247	1,772	498	3,369	600	4,500	600	4,500
봄무 · 배추	8	19	38	112	44	180	50	150
고랭지무 · 배추	75	269	147	463	136	550	140	460
가을무 · 배추	86	203	107	276	214	350	180	500
고 추	7	411	7	552	7	880	7	580
마 늘	18	560	41	1,136	47	1,410	50	1,630
양 파	49	267	134	657	123	860	140	980
파	4	4	10	91	12	130	15	100
당 근	-	-	14	82	17	140	18	100

에서 2000년 21%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소비측면에서도 채소류의 1인당 소비량은 1990년 132kg 수준에서 2000년 150kg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채류 등 시설채소의 소비는 1990년 16kg에서 2000년 70kg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채소산업은 생산측면에서 대부분의 품목이 0.1ha 미만 농가의 비중이 90% 이상으로 크고 노지채소의 경우 기상 등 자연조건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급 불안요인이 크며 소득탄력성이 낮아 생산량 변화에 따라 가격등락이 심한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WTO 출범 등에 따른 MMA 물량도입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중국 등 저가 수출국을 통해 수입량도 매년 증가하여 자급률도 연차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소비는 정체되는 반면 대체작목의 제한 등으로 생산증가의 잠재력은 커서 만성적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여 수급안정이 가장 큰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채소산업 육성제도

1) 채소수급안정(계약재배)사업(노지채소)

채소수급안정사업은 정부와 농협이 일정규모의 자금을 조성한 후 동 자금을 농협중앙회장이 산지농협 등에 지원하고, 산지농협은 동 자금으로 농가와 계약재배를 실시하며 계약물량은 가격동향에 따라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농가소득과 채소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이다.

이 사업은 95년부터 가격등락이 심한 무와 배추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02년 현재에는 무 · 배추와 함께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당근, 대파 등 12품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2002년 수급안정사업 자금은 4,500억원 규모이며 사업물량은 60만톤으로 대상품목 전체 생산량의 11%에 이르고 있어 가격등락이 심한 채소류의 수급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최저가격보장제도

최저가격보장제도는 계약재배 등 수급안정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대하여 사전에 최저보장가격을 예시하고 가격폭락시 최저보장가격으로 산지폐기 또는 수매를 실시하여 농가경영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대상품목은 무 · 배추(봄, 고랭지, 가을), 마늘(한지, 난지), 양파, 고추, 대파 등 12품목이며 파종기 이전에 가격을 예시하여 농가들의 작목 선택

<표 2> 연도별 최저보장가 예시 현황

구분	가을무	가을배추(월동)	난지마늘	한지마늘	양파	대 파	봄 무	봄배추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고 추
'02	원/kg	–	1,250	2,000	200	235(750)	105(475)	95(540)	130(500)	130(535)	2,350원/600g
'01	85	65(75)	1,250	1,850	200	235	105	95	130	130	2,200
'00	69	55	1,250	–	200	–	90	85	105	110	2,000
'99	65	50	1,200	–	180	–	90	85	95	100	–
'98	65	50	1,200	–	180	–	–	–	–	–	–

주) * ( )내는 10a당 가격(천원)임.

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보장가격 수준은 저장성이 약한 무·배추 등은 경영비에 자가노력비의 30%를 기준으로 하고 마늘, 고추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은 경영비 + 자가노력비의 100%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연도의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최저가 보장방법은 도매 또는 산지시장가격이 최저보장가격 이하로 하락이 예상될 때 최저보장가격으로 수매 및 산지폐기를 실시하여 최저가를 보장하고 있다.

3)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

시설채소 약정출하사업은 시설현대화와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가격하락 현상이 만성화되고 있는 시설채소류의 출하량과 출하시기를 수급상황에 따라 조절함으로써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1년부터 부식으로서의 중요성이 큰 오이, 호박, 가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다가 2002년에는 가지와 토마토를 포함하여 주요 시설채소류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중이다.

사업방식은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2002년 2,500억원) 하여 산지농협에 지원하면 산지농협은 지원받은 자금으로 농가와 출하약정을 체결하는데 이때 농가에게는 무이자의 약정이행 보증금을 지원한다. 출하기에는 조합이 농가로부터 약정생산을 판매 위탁받아 수급·가격동향을 감안, 판매량을 신축적으로 조절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때는 유통협약을 체결하여 출하를 조절한다.

4) 종합자금제도 지원

원예·특작분야 재배 및 생산에 종사중이거나 신규로 종사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또는 선진 작목반에 대해서 소정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농협 등 대출기관에서 심사 후 시설·개보수 및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자금제는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 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 지원하고 시설·개보수 자금과 운영자금을 통합하여 지원하고 있다. 대출 취급기관이 사업 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 대출 후 사후관리까지 일관적으로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의 효율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원자금의 종류는 원예·특작분야의 경우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5%에 3~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조건이며,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따라서 시설채소류인 콩나물의 재배시설 지원은 금년도에 최초 신규 지원사업으로 30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신청 추세를 보아 지원 확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